

한국 무용비평의 형성과 현황

문 애 령

무용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한국 무용비평 형성과정 | 참고문헌 |
| III. 한국 무용비평의 흐름과 특징 | Abstract |
| IV. 무용비평의 현황과 문제 | |

1. 서론

무용비평이란 공연 활동의 결과물인 만큼 무대 없는 비평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무용비평사는 최승희 등 한국 최초의 창작 무용가들이 활동한 1930년대에 서부터 추적할 가능하다. 그러나 김경옥은 “무용에 대한 비평과 평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화풍토이고 더욱이 8.15 해방 전에는 그런 ‘짓(?)’을 하려고 드는 사람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무용가 자신이나 몇몇 문인들이 상호 평이나 취미로써 인상적인 평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¹⁾라고 적고 있다. 실재로도 해방 이전의 공연기록은 시인이나 기자들이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부터 동란 전까지의 무용자료들을 보면 인터뷰, 제언, 무용가의 신상, 공연평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무용가의 신상이나 제언에 해당하는 글이 보다 많고 공연평은 극히 드물다. 반면, 새로운 무용계 구축을 위한 제언은 다각적으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데, 함귀봉, 한동인, 박이랑, 문철민의 등이 주요 필자들이다. 함귀봉

1) 김경옥(1976).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498.

은 무용을 체육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주장했고, 한동인은 국립무용학교 설립과 외국교사 초빙, 국립극장과 부설 무용단 창단이 조선무용을 발전시킬 것임을 제안했다.

한국최초의 무용평론가는 해방 직전에 등장한 문철민으로, 전쟁 이후에 오늘날의 평론계를 주도적으로 형성. 발전시킨 조동화. 김경옥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두 사람은 50년대부터 평론 활동을 시작했고, 1976년 창간된 무용월간지 『춤』을 통해 발행인 조동화는 무용평론가를 독자적으로 추천해 기고문을 받는 형식으로 무용평론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다른 월간지들이 생기면서 단일계보가 무너지는데, 1980년대 후반 『객석』지가 주관한 '객석 예술평론상'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대에는 『몸(무용예술)』과 『춤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평론가들이 등단했다.

잡지 수와 평론가 수로만 본다면 현재 한국 무용평론계는 세계적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수에 비해 평론 수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고, 비평 작업을 기피하는 평론가 수가 더 많으며, 비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고, 비평가들의 직업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비평가 지망생은 많아 보이지만 그들을 수용할 비평사회의 포용력과 직업으로서의 현실적 매력은 약하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무용 평론계의 변천사 및 활동상,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을 추적해서 그 업적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평론 환경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역사적 기록은 1976년부터 2006년까지의 『문예연감』을 자료로 했고, 현황 분석은 각 일간지 일 년 분량 무용평 인터넷 검색과 『객석』, 『댄스 포럼』, 『몸』, 『춤』, 『춤과 사람들』, 『예술세계』 각 일 년분 무용평을 분석했다.

연구의 한계로는 수집 과정에서 자료가 간혹 누락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배제 되었더라도 전체적인 경향 파악이나 필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한계는 역사를 일괄한다는 목적에 따라 『문예연감』의 내용만으로 글을 전개했기 때문에 보다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의 뼈대일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현황 분석을 2006년이 아닌 2003년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도 한계로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본 논문의 성격상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필자의 2004년 『문예연감』 '평론부문' 집필 자료를 재활용해 새롭게 조명했다.

II. 한국 무용비평 형성과정

1. 최초의 무용평론가 문철민

70년대에 활발한 평론활동을 했고, '개화기부터 1975년'까지의 『문예연감』 '무용평론' 부문을 집필한 김경옥에 따르면 시인 김동환이 1927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조선무용의 진흥론」이라는 글이 최초의 평론이다.²⁾

또한 김경옥은 “일제말기부터 전문적인(직업적이 아닌) 무용평론가 문철민이 나타났다, 현재(1976년; 필자 주) 우리나라에서 무용평론을 하는 사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문철민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라고 말해 한국무용평론의 역사가 일천한 사실을 요약했다.

무용평론가 문철민은 1945년 6월 15, 16일 양일간 매일신보지에 「현대무용론」을 게재했다. 내용은 당시의 춤 형태를 분류하는 것으로 발레계통을 진취한 것, 무용시를 표방한 것, 향토무용 내지 그것을 표방한 것으로 분류했다.³⁾

문철민 이외에도 무용가 조택원, 장추화, 박용호, 시인 모윤숙, 소설가 한설야, 오병년, 김관 등이 무용평과 원론적 무용론을 설파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940년에 발표된 김관의 글 「현대무용소고」에는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 노이에 탄츠⁴⁾, 던컨, 비그만, 라반, '사변적인 운동사상', '공간' 같은 전문적 개념의 용어가 등장해 당시의 지적 수준을 대변해준다.

- 2) 김동환이 쓴 '조선무용의 진흥론'은 모두 5회에 걸친 연재물중 1회분이었고, 8월 11일자에서는 영남지방의 쾌지나칭칭나네 등 '풍년무'를 논했고, 12일자에는 고대사회의 '예악'을, 13일자에는 '무녀중심의 성향당 무용'과 향토무용 등 우리 무용의 종류를 다뤘다. 16일자에는 '교화나 계몽의 도구로서의 무용의 기능', 그리고 17일자에 신무용은 군사적이고 야성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내용이다.
- 3) 발레의 특질을 극단으로 발달된 기교에서 발생하는 형식미라 했고 무용시는 자유무용으로 불리며 이사도라 던컨이 선구자라고 소개했다. 당시 우리무용가들을 무용시파로 분류하며 무기교파와 '리도믹'이 대부분이고 '모데르네 탄쯔'를 추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향토무용에 대해서는 전통무용 전수방식과 신무용적인 창작방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창작방식이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4) 신무용이나 뉴 댄스로 해석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흥무용으로 불렸다. 1920년대에 마리 비그만이 주장한 새로운 춤 철학으로 인체를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 곧 무용이라는 표현주의 현대무용을 대표한다.

문철민은 해방직후 무용예술협회의 서기장을 맡았고⁵⁾ 이론부의 수석위원도 겸했다. 또한 함귀봉이 경영하던 조선교육무용연구소에서 이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조동화, 김경옥, 정병호, 김문숙 등이 그 학교 출신이다.

2. 1950-60년대의 평론가들

전쟁기간 동안 국방부 정훈국 소속 무용대를 조직해 무용가들과 함께 했던 김경옥과 조동화는 1953년 이후 무용평론가로 활동했다. 김경옥은 1953년 11월 4일자에 ‘송범 신작무용발표회’ 평을 연합신문에 실었고, 1954년 ‘해방9주년기념 무용발표회’를 보고 9월 5일 서울신문에 “임성남군은 우리 무용계가 정말 희귀하게 얻은 남아 무용사로서… 그란주데에서 보이는 품은 이날 전 프로 위에 설 수 있다.”⁶⁾라는 그 유명한 임성남 평을 남겼다.

조동화는 1959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김백봉 신작발표회’ 평을 썼고, 11월 25일자에는 김천홍의 「처용랑」에 대해 호평했으며 1964년 『신동아』 발간으로 고정지면에 무용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평론가로 입지를 굳혔다.

60년대 초에는 동경에 있던 박용구가 귀국했고, 부산에서는 전쟁 기간에 월남한 강이문이 평론을 시작했다. 1966년 조동화, 박용구, 김경옥은 평론지 『춤』을 발간했으나 1호 만으로 정간되었고 1976년 3월 조동화가 무용월간지 『춤』을 창간하면서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한국무용계의 기록을 담당해 왔다.

3. 『춤』지의 평론가들

조동화, 김경옥, 박용구, 강이문, 김상화가 『춤』 초기의 주요 필진이었으나, 1980년 까지 『문예연감』을 쓴 이론가 및 평론가 필자로 안계승, 이병입, 이순열, 김영태, 정병호 등이 등장한다. 이후 80년대 후반에 김태원, 이종호, 김채현이 『춤』을 통해 새롭게 입문했고, 82년에는 ‘무용펜클럽’이 결성되었다. 이순열을 회장으로 박용구, 조동화, 정병호, 강이문, 김영태, 채희완, 남정호 모두 8명이 회원이었다. 이 펜

5) 문철민이 조택원을 찾아가 무용예술협회의 회장을 맡도록 했고 기금은 조택원이 마련했다.

6) 김경옥(1976). p. 501.

클럽은 87년 1월 ‘한국무용평론가회’로 개칭했고 1996년 ‘춤 비평가상’을 시상하기 시작하면서 상의 명칭과 맞추어 ‘한국춤평론가회’로 다시 개칭했다. 펜클럽회원 다수가 여전히 현재 회원 명단에 존재하나 2003년의 『춤』에는 정순영, 장광열, 김승현, 김경애, 성기숙의 평이 실려 완전한 세대교체를 보여준다.

4. 평론가 등단 채널의 증가

1984년 4월 창간된 『객석』지 주최 무용예술평론상은 『춤』지를 통해서만 무용평론가 데뷔가 가능했던 풍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80년대 후반부터 『객석』지 평론상에 당선된 이병욱, 정희창, 허영일, 한혜리, 문애령, 진옥섭, 성기숙 등이 등단했고, 이들이 대부분 무용과 졸업생이거나 실기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춤』지의 평론가들과 차별화 된다.

1993년 3월 창간된 『몸』지를 통해 김남수, 허명진이, 1999년 창간된 『춤과 사람들』을 통해 고석림, 이경희, 이벽파, 장지원, 김예림 등이 평론상에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밖에 『객석』기자출신 장광열과 『춤』과 『몸』지 편집장 출신 김경애, 박성혜도 무용평론가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

III. 한국 무용비평의 흐름과 특징

1. 비평계의 흐름과 변화

김경옥이 개화기부터 1980년까지의 비평을 『문예연감』 창간호에 정리한 다음 두 해는 남정호가 『문예연감』 ‘무용평론’ 부문을 기록했다. 82년 남정호는 당시의 비평 활동에 대해 “안무가나 작품에 관한 비평이 대부분 인상기, 감상문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학적 이론과 부수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진 전문적인 평이 아쉽다.”⁷⁾고 결론지었다.

7) 남정호(1982).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523.

83년도 판에서 박용구는 『춤』이 통권 94호를 기록한 사실과 조동화의 유럽 무용 잡지사 방문을 크게 다뤘다. 이를 통해 그는 평론가와 무용가는 세계 어디서건 대립 관계에 있다는 공통점과 함께 잡지발행인 조동화가 공연평을 쓰지 않는 것은 한국적인 특징임을 지적했다.⁸⁾

1987년의 경우는 김태원이 “한 해 노익장의 박용구나 이종호는 『춤』을 통한 대담을, 부산의 강이문, 채희완, 남정호는 지리적 불편함 때문에 현장적 춤평론 활동에 적극 뛰어들지 못했고, 이순열은 후반기 춤공연의 현장에 자주 들러 가끔 날카로운 발언을 했다. 한편 『공간』을 통해 활동했던 박일규는 안무가로서의 바쁜 활동 때문에 글을 쓰지 못했고, 경향신문을 통해 오화진이 춤평을 썼으며 『객석』을 통해 등단했던 이병옥, 정희창은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인 춤평을 하긴 어려웠다...”⁹⁾고 필자들의 근황을 스케치 했다.

1988년 다시 김태원은 “지난 한 해 거의 매달 『춤』, 『공간』, 『객석』, 『음악동아』,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정보』, 『MBC가이드』를 통해 춤시평 및 월평을 시도했던 평론가들은 김영태, 김태원, 김채현, 이병옥, 김경애, 이종호였으며 이상일은 특히 올림픽 축전 기간 중 중앙일보를 통해 인상적인 리뷰활동을 펼친 바 있었다.”¹⁰⁾고 기록했다.

1990년도 비평 활동에 대해 김태원은 “월간 『춤』지를 중심으로 김영태, 김태원, 이상일, 김경애, 강리문이 주로 리뷰성 글을 싣거나 컬럼(김태원의 경우)을 게재했고, 월간 『객석』을 중심으로 주로 신진 평론가들인 신상미, 허영일과 김채현이 자주 글을 썼으며, 『공간』지를 중심으로 김경애,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바뀐 『문화예술』지(문예진흥원 발행)를 중심으로 이병옥, 『음악동아』와 한국일보를 중심으로 김태원, 그리고 계간지인 『예술과 비평』을 중심으로 김채현과 김태원이 주로 춤 관계 지면을 채워갔다.”¹¹⁾고 기술했다.

8) 박용구(1983).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571. “일본의 계간지 『댄스워크』의 발행인 하세가와, 불란서 『레 세종 드 라 당스』의 앙드레 에르생, 영국 『댄싱 타임즈』 발행인 메리 클라크 여사가 모두 평필을 휘두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발행인은 일체 공연평을 쓰지 않는 점은 어쩌면 우리 무용풍토의 낙후성을 감안한 계산된 처신으로 볼 수도 있다...”

9) 김태원(1987).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241.

10) 김태원(1988).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201.

11) 김태원(1990).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1993년 장광열은 새로운 무용 전문지로 비평의 장이 넓어진 것을 강조했다. “1993년 3, 4월호로 창간된 격월간 무용전문지 『무용예술』의 창간은 무용계 뿐 아니라 무용평론 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무용평을 활발하게 기고한 평론가로는 김영태, 김태원, 김경애, 문애령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일, 김채현, 허영일, 한혜리 등도 단편적인 공연평을 기고했다. 1993년의 경우 무용평이 정기적으로 게재된 매체는 월간지로는 『춤』, 『객석』 외에 문예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예술』과 예총에서 발간하는 『예술세계』가 있었고, 격월간지로는 『무용예술』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젊은 신진 평론가들의 작업이 활기를 띤 반면에 50대, 60대 평론가들의 비평 작업은 여전히 부진했다.”¹²⁾고 기록했다.

2002년 이종호는 “90년대 초중반까지 왕성한 혹은 그런대로 꾸준한 활동을 펼쳤던 평론가들, 이를테면 이순열, 김영태, 김태원, 김채현, 김경애, 이종호 등이 일부는 평론이 아닌 다른 활동에 몰두하거나, 일부는 또 다른 사정(가령 매체와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애령 정도가 예외적으로 꾸준하게 쓰고 있다… 정순영, 정병호 등 60대 이상 평론가들이 한동안의 현장평론 공백을 메우려는 듯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평론가들의 글쓰기가 줄어든 원인 가운데 하나가 평론외적 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능력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무용사회의 한 특징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¹³⁾고 평론계의 변화를 지적했다.

2005년 김채현은 “2004년도에 춤 평론문을 정기적으로 게재한 언론 매체는 춤 전문지인 『춤』, 『몸』, 『댄스 포럼』, 『춤과 사람들』, 공연예술 월간지인 『객석』, 『민족예술』, 공연예술 계간지인 『공연과 리뷰』 그리고 『문화예술』처럼 잡지가 대중을 이루었다. 이에 비해 일간지에서의 춤 평론은 매우 소략하여 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미약하였다.”고 매체를 정리했다.

30여년의 ‘무용평론’ 기록은 무용비평계가 매우 느리게 세대교체 되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평론은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세대교체 선언이

12) 장광열(1993).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13) 이종호(2002).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실기분야 만큼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간의 기록은 평론의 질에 대한 자성, 무용평을 다룬 다양한 매체들, 비평 활동을 해온 비평가들, 비평가들의 활동영역 확장 등에 대한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결과로는, 전문 매체는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일간지 지면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필자 수 증가는 극히 제한적인 한편 기존 평론가들이 여러 이유로 평을 쓰지 못하는 경우까지 겹쳐 무용평론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었다고는 결코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 평론가별 글쓰기 특징

남정호가 평론가들의 구체적인 비평 방법론이 아쉽다고 한데 이어, 1983년 박용구는 김영태와 로니 조셉 고든의 무용평을 인상비평과 기술비평으로 분류해서 비교 했다.¹⁴⁾

1986년 박일규는 김영태에 대해 “비록 리뷰 형식이었고 작품묘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나 『춤』지에 실렸던 그의 평론은 거의 모든 무용공연을 다루고 있어, 춤에 대한 그의 정열과 애정의 밀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¹⁵⁾고 평했다.

또한 같은 글에서 “김영태는 시적 해석과 묘사에, 이상일과 강이문은 가치평가와 심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김채현은 역사적, 미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춤에 접근하는 학자적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김태원은 보편적 문화와 심미적 시각으로 춤을 바라보는 작가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¹⁶⁾고 했다.

1989년 허영일은 필자들의 개별 활동과 비평 특징을 평가했다. “김영태는 「프랑스 무용과 우리 작품의 격차」(『춤』 1월)에서 고급스러운 무용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제시해 주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시적인 문체로 평론의 전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의 요지를 남겼다. 이상일은 대표적 중견무용가 김현자, 박명숙, 이정희, 남정호 등의 작품평(『춤』 7월)을 통해 창작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한 바 이론적인 틀에 대한 강조로 각종의 기술적 전개양식이나 구성, 주제, 표현기법의

14) 박용구(1983). 「춤」지 10월호에 실린 ‘현대무용 네 사람’에 대한 공연평을 인용해서 김영태가 “작품의 향 목적적 인상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시켜 나갔지만 조셉 고든은 보다 드라마틱하게 무대를 응시하고 있다.”고 한, p. 572.

15) 박일규(1986).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243.

16) 앞글, p.244.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김태원의 서울현대무용단의 「그날, 새벽」 공연평(『객석』 7월)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양식비평의 기초아래 무대현장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의 동일성에 대한 전망보다는 세부동작에 대한 언급의 나열에 치중한 것이 아쉽다. 김채현은 주로 단평형식의 공연평을 통해 추상적이나마 제안적인 견해를 풍부하게 언급하였다. 춤패 디딤과 춤패 불림의 ‘민족춤’ 공연(『객석』 5월)은 춤양식의 방향성에 대한 나름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 것이었다.”¹⁷⁾

한편 장광열은 1993년 평론가 이상일의 글을 인용하며 평론가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일이 “공연예술 자체는 활발한 공연과 창작 의욕으로 평가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그 평가의 기능을 지닌 평론 활동이 계통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며 극단적인 사적 교류의 영역에서 실제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¹⁸⁾ 문제를 제기한 사실과 “우리나라에 아직 무용평론의 바람직한 위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평론가와 무용가들 사이에 형성되는 공적 관계보다 사적 사교의 적폐 때문”¹⁹⁾이라고 한 지적에 주목했다.

또한 장광열은 호평을 일삼는 평론 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 국립단체에 대한 공연평이 지나치게 호평위주로 흐른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대한 평 역시 호평 일색이란 점도 평론가들의 객관성 문제와 함께 지적될 수 있다. ‘관변평론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평론가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⁰⁾라는 내용이다.

3. 평론가의 무용 사회 참여

평론가의 적극적 무용 사회 참여는 문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향신문 1946년 10월 8일자에 실린 ‘새로운 연예계의 방향’이라는 글에서 문철민은 무용을 광대의 것으로 생각하는 인습을 타파하고 이해와 원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용학

17) 허영일(1989),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486.

18) 장광열(1994),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19) 앞글.

20) 앞글.

교를 설립, 졸업생에게는 무용교원 면허증을 교부할 것, 무용(무용극, 오페라 등까지 포함)을 위한 극장을 무용가에게 줄 것, 해외에서 무용이론가를 초빙할 것, 조선무용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알선 할 것, 무용가 협회에 권력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후대의 평론가들 중에서는 김태원이 가장 적극적 사회 참여를 주장했는데, “춤평론이 고독한 혼자만의 글쓰기 작업이 되기보다는 춤단체나 춤꾼의 춤실천 작업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춤계의 미해결문제들을 위해 ‘현장적 실천방안’ 들을 적극 모색해 갈 것”²¹⁾을 제안했다.

가. 무용사회 비판

“춤평론가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었던 사건은 79년 이래 극장적 창작춤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던 제9회 대한민국무용제의 한국무용협회측의 심사에 한국무용평론가회 회원 11인(회장: 채희완, 회원: 박용구, 조동화, 강이문, 이순열, 김영태, 이상일, 남정호, 이종호, 김채현, 김태원)이 86년 무용제의 협회로의 민간 이양 이후 ‘심각한 질적 저하와 협회의 참가단체 선정 및 심사기준에 있어 보편타당한 기준의 결여 및 운영의 폐쇄성’을 이유로 들어 무용제 참가작품에 대한 독자적 심사 결과를 발표한 일이었다.”²²⁾

유사한 기록은 2000년에도 이어진다. “서울무용제는 평론가들에 의해 수준미달의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이 대상과 안무상을 포함해 5개 부문의 주요 상을 휩쓸어 그 동안의 불공정한 심사관행으로인한 한국무용협회에 대한 무용가들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평론가들은 일제히 대상 수상 작품에 대해 혹평을 가했으며, 더불어 서울무용제의 불공정한 심사에 대해 성토했다… 서울무용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평론가 김영태는 서울무용제 참가작품에 대한 리뷰와 함께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수상 작품의 내역을 별도로 밝혀 불공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²³⁾

21) 김태원(1987).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241.

22) 앞글, p.233.

23) 장광열(2000).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나. 비평가상 제정

김채현은 “1996년도 무용평론계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사안은 한국무용평론가회가 12월 연말에 <춤 비평가상>을 제정하고 시상한 일이다. 전문 무용인을 위한 상이라면 춤계에는 서울국제무용제에 따른 상도 있고, 연말이면 『객석』이나 『무용예술』과 같은 언론사에서 작품의 순위를 매겨 평가를 내리는 것도 상의 일환이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몇몇 무용인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도 있다. <춤 비평가상>은 춤평론가들이 주체가 되어 제정하고 시상한다는 점에 그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다소 흥분된 어조의 문장을 남겼다.

다. 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사업

한국무용평론가회는 1986년 이후 매년 심포지엄 개최와 『무용저널』을 발간한다. 1986년 이순열은 ‘우리의 현행 춤 분류방식 문제 있다’를 발제했다. “일부에서는 한국무용을 전통적인 민속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1920-30년대식의 춤이라야 한국무용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창작무용과 전통 민속무용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나면, 그리고 무대예술이란 끊임없이 창조되는 우리 시대의 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혼란은 사그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²⁴⁾라고 한국 창작무용의 개선 방향을 지적했다.

이어 김태원도 이에 동조했는데, “이순열의 이러한 전통(민속)무용, 창작무용의 뚜렷한 구별 지음의 요구는 우리 춤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이것은 또한 한국 춤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필코 분명해져야만 될 것이라고 필자도 보고 싶다. 그래야만 창작춤이 전통 민속춤과의 혼란을 갖지 않고(솔직히 지금은 그 구별이 모호해서 뒤범벅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의 창작춤 방법론 위에서 제대로 설 수 있으리라 보이기 때문이다.”²⁵⁾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라. 평론가 겸 기획자 등장

1996년 이종호는 평론가의 과외활동(?)을 언급했다. “김영태 시인이 많은 무용가

24) 김태원(1987). p. 240.

25) 앞글.

들에게 자작시를 춤 텍스트로 제공하거나 대본을 써주곤 했지만 평론가들은 대체로 평론 외의 다른 일에는 손대지 않는 경향이었으나 이 같은 경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80년대에 김태원이 특정 공연의 출연자 선정 등을 맡았고, 김채현이 '94년부터 민족춤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족춤제전」을 주관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종호 자신 역시 국제행사 기획자가 된 이유를 밝혔다.

“무용계는 7~80년대의 폭발적 성장이 어느 정도 보합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후 몇몇 안무가들이 새로이 떠올라 창작계를 주도하면서 이제 우리 무용계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질적, 양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욕구를 머금고 있으나 이를 선도해야 할 인사들이 실기 중심 무용인들 가운데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무용계 내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습성을 지닌 평론가들 가운데 그런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행동으로 옮긴 경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실기무용인들은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고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 이미 그러하다는 점이다. 민족춤제전을 만든 평론가나 세계무용축제(SIDance)를 창설한 평론가가 가장 두드러진 경우라고 하겠는데, 그러다보니 그들 개인적으로는 본업인 평론에 투여할 시간과 물리력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다음해에 곧장 성기숙은 “춤 평론가는 무용공연 현장의 지킴이로서 충실해야 한다. 즉 춤 평론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춤 공연 현장에 대한 평가, 해석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반면, 춤 기획을 주도한다든가, 저널리즘에 귀속된 활동에 주력한다든가 하는 등 본연의 역할과는 비껴가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²⁷⁾고 지적했다.

심정민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춤의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는 평론가의 실제적이고 개념 있는 기획력은 우리 춤계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

26) 이종호(2002).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27) 성기숙(2003).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서는 지나치게 확장되어가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현재 춤 평론가들은 교육, 출판, 언론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에 이르기까지 겸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춤 평론가의 소임의 분할은 어쩔 수 없이 평론활동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특히 역량 있는 춤 평론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 못하다는 것은 춤 비평계와 춤계 모두에게 고무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²⁸⁾고 했다.

IV. 무용평론의 현황과 문제

1. 매체별, 필자별 무용평 게재 현황

이 장에 언급될 내용은 필자가 쓴 2004년 『문예연감』 ‘무용평론’의 일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각주는 생략한다. 2003년도 매체별 무용평 게재 현황을 보면 일간지의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적었다.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세 건이었다. 5월에 박성혜가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를, 9월에 장광열이 홍신자의 「세라핌」을, 10월에 다시 장광열이 프렐조카주의 「헬리콥터」와 「봄의 제전」 평을 실었다.

중앙일보에는 4월에 문애령이 안은미의 「춘향」을, 한국일보에는 5월에 문애령이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에 관해 썼다. 한편, 신문기자들이 공연평을 쓴 경우도 있어, 동아일보의 김형찬 기자가 홍승엽의 「두 개보다 많은 그림자」를, 세계일보의 김은진 기자가 피나 바우쉬의 「마주르카 포고」에 관해 썼다.

무용전문월간지에 게재된 무용비평 분석 결과 현재 활동하는 평론가들은 정순영, 장광열, 김승현, 김경애, 성기숙, 김태원, 고석림, 이경희, 이벽파, 김영태, 이상일, 김남수, 김채현, 유인화, 문애령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종합월간지를 포함시키면 이종호와 이근수가 추가된다.

무용전문지별 연간 무용평 게재현황을 보면, 『댄스 포럼』이 49편, 『몸』이 134편, 『춤』이 84편, 『춤과 사람』이 83편이었다. 평을 계산한 기준은 ‘꼭지’ 별이다. 즉,

28) 심정민(2006). 『문예연감』(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넷자료.

‘작가2인전’ 같은 대규모 공연이더라도 한 편에 다뤘으면 한 개로 계산했다. 또한 작가전 중에서 한 작품만을 쓴 경우에도 역시 한 개로 계산한 결과다.

무용평론가별 게재수를 보면 김영태 68, 이상일 25, 김남수 33, 고석림 23, 이벽 파 12, 이정희 21, 정순영 31, 장광열 38, 성기숙 30, 김승현 25, 김정애 5, 유인화 1, 김태원 2, 김채현 1, 문애령 35개로 나타났다. 김영태의 평론수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그가 여러 작품을 원고지 2-3매 정도로 매우 짧게 다루는 비평스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평론가들은 대부분 한 꼭지 당 원고지 6매에서 15매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

2. 비평 내용 분석

무용 전문지에 게재된 여러 비평가들의 평문을 일견한 결과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문제점 지적에서 평론가의 실명 거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현황 연구자로서의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예문 없이 그 결과만 요약했다.

가. 평론가로서의 모범 제시

유용한 지식, 번득이는 정확한 단어 발굴, 풍자에 가까운 유머러스한 비유, 비늘 같은 따끔한 지적 등 평론가의 의무를 다하는 글들이 과연 평론가답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유도한다.

나. 무용사회 관찰자로서의 역할

평론가는 무용 작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국립 단체 등 특정 무용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국고 등 지원금을 받은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간략하고 강하게 제시한 내용은 무용사회 관찰자로서의 평론가 역할을 돋보이게 했다.

다. 지식과시의와 외국어 남용

과거의 비평문에서 자주 발견되듯이 평론가들은 자신의 지식을 평문을 통해 과

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평문의 절반 이상이 '무용론'을 피력한 것이고, 공연평은 원고지 한두 장 분량인 경우도 있었다. 그 보다는 덜하지만 유사한 관행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몇몇 필자들은 외국어를 필요 이상으로 애용한다. 가당치 않은 불어 단어로 글이 멋있기를 바라고, 영어단어로 유식해 보이려는 식의 발상이 여전히 글 쓰는 이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 같다.

라. 작품평을 대신한 소재 해설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공연일 경우,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나쁜 기법은 억지스런 연계성으로 멋진 일화를 끌어오거나 작품의 소재 해설로 평가를 대신하는 글쓰기다. 춤 실력과 안무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화려한 줄거리 해설만 있는 경우 평론가가 무용가의 대변자 같은 인상을 준다. 정곡을 찌르기가 어려우면 헛소리를 하는 셈이다.

마. 평론가의 역할 혼동

어떤 비평가는 시작에서 끝까지 공연 묘사를 충실히 한 것으로 글을 마치는데, 그런 작업은 평론가가 아니라도 잘 할 수 있다. 지적은 전혀 없는 대신 잘하기를 바란다든 식의 희망으로 얼버무리는 평도 많다. 반대로 동작, 구성, 의상을 묘사한 후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며 지시하는 논조는 안무자를 보완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안무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권위적인 태도다.

바. 개인 수필이 된 무용평

평론가 자신의 개인 경험을 평문에 장황하게 끼워 넣어 수필인지 무용평인지 구분이 안 되고, 평론가의 잡 지식 나열로 평을 대신한 경우도 있다. 혹은, 무용가의 안무 동기와 과정을 자신의 추측까지 가미해서 안무가 이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 굉장히 친해 보인다. 평론가와 무용가가 친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또한, 무용가의 사생활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인터뷰 기사처럼 보이는 글이나 안무자 개인의 이력서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할 때 평론가가 홍보대행사 직원 같다.

사. 평론의 글쓰기 체제 무시

대본 내용을 평문에 장면별로 소개해서 공연평이 대본 집을 방불케 한 경우도 있다. 인용부호 없이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어디까지가 안무자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평자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황당한 경우다.

아. 편파적 시각 조성

가장 위험한 문제점은 평론가 개인의 입지에 따라 편파적인 시각을 강조하며 편파적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억지스런 장점을 도출해서 글을 끌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작품이 아닌 평소의 자세에 대한 칭찬 일변도, 찬양에 가까운 격려사는 평론가라는 직업에 비애를 느끼게 만든다.

자. 기초 소양 부족

평론의 기초적 소양인 평가기준 제시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무용 사조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평론의 기초인 만큼 이 기본이 없으면 창작품 평가가 불가능하다. 평론가들의 자기반성이 가장 시급한 항목이다.

차. 역사 기록자로서 인식부족

공연평 중에는 누구의 어떤 작품인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는 평론가의 중요한 본분 중 하나가 연대기기록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특정 공연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평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같은 부류의 문제로, 기획공연에서 한 작품만을 집어내서 평을 쓰는 경우도 평론가가 매우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공연 전체에 대해 출연진의 이름만이라도 일괄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상식이다.

3. 비평계 내부적 문제

1994년 기록을 보면 10년 사이에 평론가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장광열은 “우리나라에서 무용평론가란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은 열 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 중에 공연 현장에 자주 나타나 공연을 보고 정기적인 평을 기고하

는 사람들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론 작업은 그만큼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무용평론 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용평론가로의 등단 절차와 자격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무용평론가들의 경우 『춤』지 등 전문 잡지의 추천을 받거나 『객석』에서 실시하는 공연예술 평론상 등단 제도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²⁹⁾라고 당시의 평론계 현황을 설명했다.

평론가 수가 두 배로 불어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에 인용된 현상이 2007년 현재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 원인을 찾고 찾다가 도달하는 원점, 평론계의 진정한 문제는 평론과 생계유지가 무관하다는데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열성이 뻗친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거나, 장광열의 지적대로 무용가들과의 밀월을 즐기거나, 아니면 고급 취미삼아 성깔부리다가 떠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더 좋은 직장 잡기까지 잠시 머물렀다가는 사람들의 움집터가 무용평론계인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매력이 있을 것인데, 몇몇 평론가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주요 결정권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지원심이나 정책자문, 다양한 심사에 들어가 무용가들을 선정한다. 그러나 평론가 몫 자리 수를 돌아가며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골 심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주기가 상당히 길다. 이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평론가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평론가들의 직업은 대부분 무용사회와 연관되기 때문에 과외 활동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기획을 겸하는 평론가는 평을 접는 것이 순수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용가들을 상대로 무대와 돈을 흥정하는 관계의 사람이 평을 쓴다면 암암리에 너무 일방적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규칙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평론가라고 해서 기획자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허영일, 이종호, 장광열, 김채현 같은 평론가들이 이미 성공적인 기획력을 발휘해 또 다른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29) 장광열(1994). p.777.

V. 결 론

해방기 전후로 서서히 생성된 한국의 무용 비평계는 소규모지만 강한 힘을 지닌 단체로 성장해 왔다. 매체의 증가로 90년대 이후 평론계 역시 급속히 다양화되었고, 그 여파로 현재 혼란기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용평론가들은 역사적으로 무용가들과 동고동락을 마다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도 보였고, 무용사회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조언도 했으며, 심지어는 무용기획에 직접 뛰어들어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실기면에서의 활약까지 해왔다. 반면, 그들의 무용 사회 참여가 마녀사냥식 공격은 아니었는가, 평론가의 본분을 넘어선 월권행위는 없었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 춤 장르 정리, 학술 행사 등은 사실 무용학자들의 몫인데, 그것을 평론가들이 먼저 주최했으니 우선은 무용계가 반성하고 감사할 일이다. 동시에 '한국춤평론가회'가 세미나 준비나 비평가상 제정으로 인한 경비 부담에 있어서 무용가들로부터 참으로 독립적일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다른 한편, 과외 활동의 경우에도 대본 대필, 대학 강의, 출판업, 잡지사 운영, 공연기획 등 대부분 무용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평론가 찾기가 어려운 사회구조다.

일간지가 무용 리뷰를 기피하는 현상은 무용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관심, 필자 선정의 어려움, 원고료 지출문제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간지와 무용계의 조화로운 조율과 발전 방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월간지 비평의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풍부해 졌으나 질적인 측면에는 보완해야할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매체가 하나일 때는 계보적 독주를 문제 삼았는데, 매체가 늘어나니 이번에는 편 가르기식 체제를 걱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깨달았다.

비평 내용에 있어서는 존경받거나 신뢰할만한 내역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과거 80년대의 필자들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는 용기'를 지녔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오죽하면, 비평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 둘 빠져나가고 평론가라는 직함에 심취한 아마추어들이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평론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은 평론가의 생계를 글쓰기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업무용단과 안무자를 후원하듯이, 좋은 평문을 원한다면 직업 평론가 역시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간지에 필자 고용을 후원하거나 월간지 발간을 후원해서 그 소속 평론가들의 원고료를 간접적으로 책임지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지금처럼 거의 자원 봉사에 가까운 평론가 체제가 지속된다면 잡다한 비리근절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글의 질적인 면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 김경옥(1976).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남정호(1982).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박용구(1983).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박일규(1986).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태원(1987). '무용평론', 1988, 1990, 1992),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허영일(1989).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채현(1993, 1997, 2005).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장광열(1994, 1999, 2000).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이종호(1996, 2002).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성기숙(2003).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애령(2004).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심정민(2006). '무용평론',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무용리뷰', 『객석』. 서울: 월간 객석, 2003년 1월- 12월.
- '무용리뷰', 『댄스포럼』. 서울: 월간 댄스 포럼, 2003년 1월- 12월.
- '무용리뷰', 『몸』. 서울: 창무 예술원, 2003년 1월- 12월.
- '무용리뷰', 『춤』. 서울: 월간 춤, 2003년 1월- 12월.
- '무용리뷰', 『춤과 사람들』. 서울: 월간 춤과 사람들, 2003년 1월- 12월.

‘무용리뷰’, 『예술세계』. 서울: 한국문화단체 총연합회, 2003년 1월- 12월.

국민일보 2003.1.1-2003.12.31

경향신문 2003.1.1-2003.12.31

동아일보 2003.1.1-2003.12.31

대한매일 2003.1.1-2003.12.31

세계일보 2002.1.1-2003.12.31

조선일보 2003.1.1-2003.12.31

한국일보 2003.1.1-2003.12.31

한겨레신문 2003.1.1-2003.12.31

논문투고일	2007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3일
심사완료일		7월	20일

Abstract

The Formation and Status of Korean Dance Critique

Aeryoung Moon

Dance Critic

Concurrent Professor of Dance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research provides a view that the starting point of Dance Criticism in Korea dates back to 1945. As Journalism developed in a short time 1990s dance criticism was also formed active in various magazines.

This research began with the objective of investigating the form of publications of Korean dance critique, ranging from the type of publications, the frequency, the structure, and its content. The role, value and drawbacks of Korean dance critique have been pointed out from researching the dance reviews reported in the culture section of daily publications and monthly dance journals pertaining to the year 2003.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to accentuate the fact securing the critic independent social status would serve as the fast track toward active critiques.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critics may be guaranteed by the publication enterprises, however this is somewhat impossible in a realistic sense. Rational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accommodate capable critiques; however, it is regretful to acknowledge the current status of our culture has not yet reached that level.

Keywords: the History of Dance Criticism in Korea(한국무용비평사), Dance Critic(무용평론가), Characteristics of Dance Criticism(무용비평의 특징), Analysis of Dance Critique(무용평문분석), the Problems of Dance Criticism in Korea(무용비평의 문제점)